

「開化僧 李東仁」에 關한 새 史料

李 光 麟*

I.

한국에서 開化運動이 시작될 때 몇 명의 僧侶들이 參加하여 活躍한 바 있다. 筆者가 아는 僧侶만 해도 李東仁, 卓挺植, 李允臬, 車弘植 등 4名에 이른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開化運動에 投身하게 되었을까. 不幸히도 이를 밝힐만한 充分한 史料를 우리들은 갖지 못한다.

더욱이나 本稿에서 살펴 보려는 李東仁을 除外한 나머지 3名에 대해서는 간단한 經歷밖에는 모르고 있다. 그것을 紹介한다면 卓挺植의 字는 夢聖, 法名은 覺地, 또는 無不, 江原道 百潭寺 出身이었고,¹⁾ 韓美修交의 알선을 요청하기 위해 政府의 密命을 띄고 日本에 건너가 淸國公使 何如璋을 訪問한 일이 있으며, 1883년 金玉均이 借款交渉次 日本을 訪問하였을 때에도 同行하였다가 客地인 神戶에서 病死한 사람이었다.²⁾

李允臬의 法名이나 出身 寺刹은 알 수 없다.³⁾ 그 역시 金玉均이 日本訪問時 同行하였고, 甲申政變이 失敗에 돌아가자 日本으로 亡命하였다가 金玉均이 日本政府에 依해 小笠原島로 流配되었을 때 그를 隨行한 唯一한 사람이었다.⁴⁾

* 西江大學校 史學科 教授

- 1) 李能和, 『朝鮮佛教通史』(新文館, 1918) 下卷 pp. 898~9.
- 2) 拙著 『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pp. 96~100. 그리고 『漢城旬報』 16號(朝鮮開國 493年<1884> 3月 1日刊) 國內私報 참조.
- 3) 大喜多義城, 「숨은 義人 須永 元翁 回顧錄」, 『古筠』 22號(古筠會, 東京, 1937年 11月 25日刊)를 보면, 金剛山 某寺의 僧이라 있다.
- 4) 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所藏, 『韓國亡命者 金玉均의 動靜關係雜件』(二)중 1886年(明治 19年) 8月 8日 神奈川縣知事 沖 守固가 外務大臣 井上 馨에게 보낸 「朝鮮人 金玉均追放顛末書」 참조.

車弘植은 서울의 華溪寺 出身으로 그도 또한 金玉均이 日本을 訪問하였을 때 隨行하였고, 甲申政變이 失敗로 돌아가자 避身하지 못하고 官憲에 체포되어 處刑된 사람이었다.⁵⁾ 이처럼 모두들 金玉均과 關係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李東仁도 金玉均과 깊은 關係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1970년 筆者는 「開化僧 李東仁」이란 論文을 發表하여 江湖諸賢의 叱正을 받은바 있다.⁶⁾ 이것은 李東仁이 1880년末 두번 제 日本往來와 다음 해, 즉 1881년 3월 그가 行方不明이 된 것에 焦點을 두어 살핀 것이었다. 한국側의 史料는 매우 簡單하고 斷片的인 것이어서 李東仁의 活動을 살피는데 充分치 못하였다. 反面에 日本側 史料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당시 日本은 한국 侵透를 노리고 있는 때였으므로 한국의 諸般문제에 關心을 가져 記錄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重要한 것으로서는 日本 東本願寺에서 發刊한 『朝鮮開教五十年誌』⁷⁾와 東本願寺 所屬 僧侶 奧村圓心の 『朝鮮布教日誌』,⁸⁾ 그리고 江華島條約 체결 뒤 한국에 進出한 初代 日本公使 花房(義質)의 文書이다. 이 『花房文書』는 現在 東京都立大學 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는데 1970년頃 이 文書의 一部 複寫版을 한국의 國史編纂委員會에서 가져온 바 있어 筆者는 이것을 利用하였다.

그런데 1984년 11월 筆者는 前記 都立大學 圖書館을 직접 訪問하여 綿密히 花房文書를 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그 結果 國史編纂委員會에서 갖지 못하고 있고, 또 既往에 都立大學 圖書館에서 花房文書를 「마이크로필름」으로 複寫하면서 故意的이었는지, 또는 不察에 依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복사하지 않은 文書도 있음을 發見하였다. 복사하지 않은 文書

5) 『推案及鞠案』 卷 30 高宗 2(亞細亞文化社, 1978) 所收 「大道不道罪人喜貞等鞠案」 참조.

6) 『創作과 批評』 1970年 가을號; 拙著 『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所收.

7) 朝鮮開教監督部 編, 1927年刊.

8) 「朝鮮國布教日誌」는 日本 長崎縣의 高德寺에 所藏되어 있다. 『韓國學論叢』 7輯(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5) pp. 252~312에 全文이 掲載되어 있어 參考할 수 있다.

를 뒤지는 동안 筆者는 「東仁聞書」라는 조그마한 表紙가 붙은 文書를 찾아냈다.⁹⁾ 이것은 花房公使가 李東仁과 만나 2시간 이상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李東仁으로부터 들은 것을 적은 것이다. 內容을 자세히 읽어 보니 李東仁의 人物이나 思想을 파악하는 데 다시 없는 貴重한 史料라고 생각되었다. 全文은 約 1,850字, 草書에 漢字가 섞인 日本式 書翰文, 즉 候文으로 써여져 있다.

李東仁에 關해 또 다른 史料 하나를 發見하였다. 그것은 『興亞會報告』 第4集(明治 13年<1880> 4월 發刊)에 掲載된 「東派本願寺 遊學生某」가 寄稿한 「興亞會 參」이다. 『興亞會報告』란 興亞會에서 每月 發刊한 雜誌이다. 이 雜誌에 寄稿한 「東派本願寺 遊學生 某」를 筆者는 李東仁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日本의 東本願寺에 李東仁 以外에 다른 遊學生은 없었던 것 같고, 特히 李東仁은 興亞會와 깊은 關係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興亞會는 1880年 3월에 創立된 團體인데,¹⁰⁾ 그 뒤 83年(明治 16) 1월에 「亞細亞協會」라고 改稱하였다.¹¹⁾ 日本을 訪問 중에 있던 李東仁은 興亞會의 月例會에 몇 차례 參席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고,¹²⁾ 또 『興亞會報告』 第13集(明治 13年<1880> 12월 發行)에 「告白 朝鮮人李東仁君 前有故 稱朝野繼允 近復舊名」이란 記事가 실려져 있는 것으로서도 李東仁과 興亞會와는 깊은 關係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79年 李東仁이 日本에 처음 密航하였을 때에는 「朝野繼允」이란 日本 이름을 使用 하였으나,¹³⁾ 一旦 韓國에 귀국 하였다가 政府의 命을 받고 再次 日本을 訪問하였을 때에는 堂堂히 自己的 本名, 즉 李東仁을 使用하였으므로 興亞會에서 위와 같은 告示를

9) 『花房義實關係文書目錄』(東京都立大學 附屬圖書館, 1979)에는 「李東仁談話記錄 明治[] 4.25」으로 表示되어 있다.

10) 『興亞公報』 1輯(1880年<明治 13年> 3月 24日刊) 참조.

11) 『朝野新聞』 1883年<明治 16年> 1月 27日 廣告.

12) 이를테면, 『興亞會報告』 10集(1880年<明治 13年> 9月 20日刊)을 보면, 1880年 9月 5日에, 또 『東京日日新聞』 1880年 11月 22日 日字 記事를 보면, 11月 18日에 열렸던 月例會에 參석하고 있다.

13) 前掲 『興亞會報告』 10集에는 「朝野東仁」이라고 있다.

하였던 것이다. 이 史料는 約 690 字, 純 漢文으로 쓰여져 있다.

이제 이 두 史料, 즉 花房文書에 들어 있는 「東仁聞書」와 『興亞會報告』에 들어 있는 「興亞會 參」의 內容 全部를 먼저 紹介한 뒤, 若干의 問題點을 提示하여 볼까 한다. 그런데 東仁聞書는 日本語로 되어 있으므로 讀者들의 便宜를 위해 우리말로 번역하여 掲載한다. 물론 筆者의 能力不足으로 日本語의 微妙한 ニュ앙스를 正確하게 傳達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內容의 大綱만이라도 紹介할까 한다.

(I) 「東仁聞書」(a, b, c 등의 記號는 便宜上 筆者가 부친 것임.)

(a) 四月二十五日 아침 東仁 왔다. 나아가 만났더니 衣袴頭髮 모두 顯堂之官吏 또는 書生과 같고 坐作言語 또한 我人과 달랐다. 오직 應答하는 사이에 말하고자 하고, 또 能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듯 하였으나, 그 뜻을 明白히 理解하기 힘든 것이 있음을免치 못하였다. 그러나 무릇 두 時間 남짓 談話하였다. 內容은 大略 如左.

(b) 過日 前田을 만나 뜻을 이야기하였다.

(c) 朝鮮은 貧弱에 安住하고 富強에 힘쓰지 않음을 嘆息하면서 견디어 왔다. 물론 志士가 없는 것은 아니나 헛되이 憂慮의 말을 끄집어 낼 수도 없다. 입을 열면 禍가 받드시 自己 몸에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d) 予의 同志의 巨擘이라고 依賴할 수 있는 사람은 弘文館 校理 金玉均이다. 校理는 五品官이라 할지라도 높은 素封의 家門 出身으로 몸에는 才德을 兼하고 謙讓하여 잘 志士들을 愛敬하고 있다. 나이는 今年 29 歲이다.

(e) 吳慶錫은 中人이라 稱하는 집안으로 清譯官이다. 譯官中 有識者로 알려져 있다.

(f) 金玉均도 吳慶錫과 같이 劉鴻基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宇內形勢에 뜻을 쓴 계된 사람들이다.

(g) 趙盛夏는 吏曹判書이고 趙寧夏는 訓練大將이다. 兄弟 모두 大王大妃의 조카로 官職 또한 顯要에 있다. 宇內形勢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能히 말하지 못하는 部類이다.

(h) 李裕元은 본시 領議政, 即 太政大臣이었고 지금에는 領府事로 있는데 威權

이 最高를 차지해야 될 사람이나 오늘의 世態를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쓸모가 없다.

- (i) 鋪陵尉라는 사람은 나이 20歲이나 官은 一品官으로서 才學이 있고 뜻을 가진 사람이다.
- (j) 姜夔는 劉鴻基와 같이 우리들이 先輩로 우러러 보고 있는 사람이다.
- (k) 朝鮮에서 勢道라하면 政府에서 中心이 되어 萬機의 樞要를 잡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今日 이처럼 重大한 時期에(일을 處理하려면……筆者) 勢道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國王, 王妃, 領議政, 王妃의 兄 四人의 合議가 겨우 勢道를 하는 정도이다. 이 때문에 政府의 일은 百事因循할 수 밖에 없다.
- (l) 過日 金玉均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에 依하면……筆者) 頃日 李鴻章의 書翰이 到達되었고 西洋의 二·三國을 紹介할 意思를 表明한 것이라 한다. 李의 말은 朝鮮에서도 들어 알았을 것이나 이를 拒絕하였다고 한다.
- (m) 朝鮮貿易은 近來 크게 隆盛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十 중 八, 九는 西洋商品이다. 왜 그런가 하면 日本物은 좋다고 할지라도 旣賞用이 많고 또한 날로 朝鮮人은 千價를 貴히 여기고 있고 廉價한 衣食을 얻으면 그것으로 自己들의 欲望을 充足시키는 사람들이다. 西洋의 木綿이 가장 그 欲望에 適合하다. 지금 萬若에 二·三의 西洋國人이 와서 貿易을 하면 朝鮮의 商人은 모두 그 商品을 購入할 것이다. 日本人이 하는 장사는 當장 없어질 것이다. 이는 商人이 오직 利를 보고 義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大抵 지금 西洋人은 他人이다. 日本人은 兄弟이다. 利를 같이 할 때에는 他人에게 懇切한 태도를 보이나 한번 困難을 당할 경우에 부닥치면 문득 돌보지 않게 된다. 兄弟는 이와달리 平常時에는 다름이 많으나 一旦 危急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서로 救援하게 된다. 故로 나는 그 危急한 때에 依賴할 수 없는 他人인 西洋人에게 利를 얻도록하게 하는 것보다 兄弟사이인 日本人에게 恒常 利를 나누고 싶다.
- (n) 朝鮮은 鑛山이 豊富하나 着手하지 않고 있고 또한 田野도 아직 開墾되지 않은 것이 많다. 지금 日本과 힘을 합하여 田野를 開墾하고 鑛山을 開發하고 나라의 門戶를 열고 그리하여 武備를 嚴히 할 수 있다면 實로 兩國의 慶事이다. 桂洞宮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 命으로 蒸氣船을 사고자 한다 하나 나는 알지 못하고 있고 別다른 見解도 없다. 그렇다 하나 나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礮을 鑄하고 배를 만든다는 것은 武備 중에서 가장 緊急히 해야 될 일이고 그 急務를 着手하기 위해서는 먼저 鑛山이라든가 田野의 開墾에 着手하지 않으

면 안된다.

(o) 또한 朝鮮에 六矣廬이라는 것이 있다. 絹·紬·木綿·麻·米 등의 物件一切를 갖춰 政府의 使用에 提供하는 廬이다. 日本의 用達과 같은 것이다. 이 廬에 배를 購入하게 하여 日本人 大商賈를 雇하여 태워 朝鮮 內地와 開港場 間에 通信의 길을 만들어 有志의 일꾼으로 하여금 開港場에 往來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아울러 內地 鑛山 新田開墾 등의 計劃을 세워 또한 米 또는 金銀으로서 支拂받기로 하여 一時 楮幣를 日本政府에서 빌려 그것으로서 商人들에게 即時 배나 器機 등을 購入케 하는 일을 할 수 없울런지. 萬若 이런 일 때문에 돈을 借入할 수 있다면 六矣廬의 物品은 거의가 다 日本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六矣廬은 또한 鑛山이나 新田 등의 일에도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다. 故로 可能한 일이라면 予는 同志와 計劃하여 六矣廬에 勸하고자 한다. 日本公使나 管理官(뒤에 領事로 改稱됨……筆者)이 해마다 많은 石炭을 消費하면서 萬里의 波濤를 건너 百方으로 說諭한다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相對로 한다면 도움이 안된다. 거기에 內情까지 모른다. 이런 까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如何튼 지금의 政府는 넘어놓고 日本의 說諭를 기꺼히 듣지는 않을 것이다.

(p)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應답이 있었다. 日本의 說諭 勸告를 즐겁게 듣게 되면 一改革이 있는 뒤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 改革을 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改革해야될 目的을 定하지 않을 수 없다. 그 目的을 定하기 위해서는 日本을 模範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模範을 얻기 위해서는 同志中 拾數人을 同伴하여 가서 나누어서 陸海軍이며, 外務며, 會計며, 勸業 등의 事業과 制度의 大體를 모두 調査하도록 해야한다. 이 十數人이(日本에……筆者) 가는 것을 許諾할 것인지. 또한 諸官省에 들어가 親히 그 事業을 取扱하고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q) 韓國인이 日本으로 가는 것은 罪人 등을 除外한 外에는 許諾됨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假令 許諾치 않는다 해도 素質을 가진 有志라면 누구라도 保護할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 計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對答하였다.

(II) 「興亞會 參」

(a) 池中之魚 千廻百廻 所見不過池內 夢中之人 千思萬度 所計不出夢裡 豈唯夢魚然也 凡關於局見 而不能自奮者 皆然也 昔者 軒轅氏 造舟車 以濟不通 習用

干戈 以征不享 神農何不先爲之 而待於黃帝 周公制禮作樂 以文當世 夔契何不先爲之 而待於周公 仲尼刪詩書 修春秋 以詔後世 周公何不盡爲之 而待仲尼乎 蓋聖人當其時有其事 天下之變無窮 聖人之法 亦隨而無窮 此所謂大易之道 隨時變易 以從其道者也 若久而不變則塞弊 弊則害生 比理與古無殊 而周孔之後 更無有如神農黃帝者 一出而變通之

- (b) 今我洲之委靡不振 受困於歐人者無他 坐於局見 不能取善於人 當其變通 而不能變通也 歐米之所以權強於海外者無他 皆由於交集群居 互師其長 隨時變通 以從其便故也 是以我益困 而彼益強 嗚呼痛哉
- (c) 英人始造鴉片 將以網我洲之利 毒我洲之人民 清人焚之 實出於不得已之政 若清人不焚 則必載而之他邦 以害人命矣 英人造之 只出網利之奸計 清人焚之 實出於愛人之善心 二者之間 邪正可分 彼反以此嫌 連師來攻 又殺我幾萬無辜之人命於鋒鏑之下 先是又無端尋衅 齟齬我印度諸邦 其恃強傲弱之罪 實不可容貸於正法公案 而坐於強弱之異勢 不能正其罪案 寧不欲溘然乎
- (d) 然彼所恃以富強自傲者 蓋工商之利 艦砲之精已而 數歲之後 我民皆得其術 彼將恃何以侮我耶
- (e) 米華氏起田民 執農器 以制寧鋒 一懲其肆虐之習 而今諸洲弱邦亦受其賜者多矣 彼華盛氏始亦一箇志士已而 以我洲人士之衆 較曩時米洲之勢 難易亦有間矣 而不能自奮 可謂我洲有人士乎 嘗按五洲人口凡十億萬有餘 而我洲人口居七億萬有餘 以七億萬有餘 以七億萬之衆 受無人之責 寧不浩歎
- (f) 適謁東都 始聞此會初設事 伏地攢手 自不覺感淚汪汪被面 傾出學資三十金 以助設費 目 如涓滴無補大海 然或因此言而有奮起者 追廣神農黃帝之舊績 主持正法 一匡大局 使我洲爲宗洲於億萬斯歲 則不無所補矣

明治十三年 四月 日

東派本願寺遊學生某

本會 會長坐下

II.

(I)의 「東仁開書」부터 설명한다면, 마지막 (q)의 내용은 花房이 李東仁에게 答한 것이니까 李東仁의 思想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히 取扱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a)에서 (p)까지 살펴볼까

한다.

먼저 (a)에 있어서 첫머리에 나오는 「4月 25日」은 몇 年의 4月 25日 일까? 이것은 이 文書 중에서 매우 重要的 位置를 차지한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筆者는 이것을 1879年(高宗 16, 明治 12)으로 보고 싶고 또 花房과 李東仁이 만남 場所는 釜山이었다고 생각된다.

花房은 江華島條約이 체결된 다음 해, 즉 1877年 9월 外務大書記官兼 代理公使로 任命되어 公使의 駐京, 開港場 開設등의 문제를 協商하기 위해 韓國에 派遣되었다. 1879年에도 元山, 仁川 2개所의 開港 문제를 妥結짓기 위해 3月 31日 東京을 出發, 軍艦 高雄丸에 타고 4月 13日 釜山에 入港, 그뒤 29日 同港을 떠나 韓國의 西海岸 一帶를 測量하면서 6月 12日 江華島 對岸인 通津府에 上陸하여 서울에 들어왔다.¹⁴⁾ 그러므로 花房은 4月 13日에서 29日까지 17日間 釜山에 滯留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 期間인 25日에 李東仁과 만났던 것이었다. 周知하듯이 李東仁은 東萊 梵魚寺 所屬 僧侶였던 것이므로¹⁵⁾ 釜山에서 花房과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萬若 이 推測이 옳다고 한다면 李東仁이 처음 渡日하기 이전이 된다. 李東仁이 渡日한 것은 그 해 6月 上旬이었기 때문이다.¹⁶⁾

다음으로 李東仁이 옷이나 頭髮 모두 높은 벼슬아치나 書生과 같고 몸짓, 言語 또한 堂堂하다고 있는데 이것으로 그의 人品의 一面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어 (b)를 보면, 過日 前田를 만나 뜻을 이야기 했다고 있다. 이것은 앞의 (a)에서 설명한 4月 25日이 1879年의 일이라는 說을 뒷바침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보이는 「前田」은 日本 外務省 五等出仕 前田

14) 田保橋 潔, 『近代日朝關係의 研究』(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年), 上卷 pp. 701~6.

15) 前掲 『朝鮮國布教日誌』에 依하면 李東仁은 慶南 梁山 通度寺 白蓮庵에 屬하였던 僧侶이고 實名은 琪印이라 있다. 물론 通度寺도 釜山과 가까운 距離에 있으니 쉽게 訪問할 수 있었을 것이다. 筆者는 李能和의 『朝鮮佛敎通史』에 依해 梵魚寺說을 따른다.

16) 『朝鮮國布教日誌』 참조.

獻吉이다. 그는 前任者 山之城祐長을 代身하여 1879年 6月에 正式으로 駐釜山港 日本管理官(뒤에 領事로 改稱)에 任命되었으나 이미 前年에 釜山에 와서 諸般事情을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다.¹⁷⁾ 萬若에 이 推測이 옳다고 한다면 李東仁은 花房을 만나기 前에 管理官으로 就任하기 위해 釜山에 온 前田獻吉을 만나 自己의 뜻을 이야기한 셈이다.

日本 東本願寺 別院이 奧村圓心이란 僧侶에 依해 釜山에 설치된 것은 1877年 8月이었고, 李東仁이 이 別院을 처음 訪問하여 奧村와 만난 것이 1878年 9月이었다. 그 뒤 日本에 대한 知識을 얻기 위해 李東仁은 別院을 자주 찾아 갔다고 傳한다.¹⁸⁾ 따라서 李東仁이 前田, 그리고 花房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혹 奧村의 앞선에 依해서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c)를 보면 朝鮮은 매우 가난한 處地인데도 누구나 開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걱정하는 志士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萬若 建議을 하게 되면 不平分子로 몰려 害를 입게 됨으로서 傍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d), (e), (f), (j)는 서로 關聯되는 글이어서 같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는 매우 重要한 事實들, 이를테면 急進開化派, 즉 開化黨의 中心人物에 대대 擧論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 사람의 回顧談을 利用하여 研究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 回顧談도 開化黨이 만들어진지 5, 60年이 경과된 뒤의 것이었다. 『金玉均傳』¹⁹⁾에 실려있는 吳世昌의 回顧談은 그 代表的인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內容은 史料의 價値로서는 第1級에 屬한다고 생각된다. 開化黨 創設當時와 가장 가까운 時期의 記錄이기 때문이다.

17) 『高宗時代史』 卷 2(國史編纂委員會, 1968) pp. 98~99, 高宗 16年 5月 3日 條. 그리고 前掲 『朝鮮國布教日誌』에 依하면 1878年(明治 11) 10月 1日에, 「管理官 山之城祐之氏가 韓人에 대해 이야기 함」이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正式으로 管理官으로 任命되기 7, 8개월 前에 釜山에 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 『朝鮮國布教日誌』와 『朝鮮開教五十年誌』 참조.

19) 上卷(古筠紀念會, 東京, 1944) pp. 48~50.

(d)에서 「予의 同志」란 開化黨의 同志를 말한다. 그리고 巨擘, 즉 指導者는 弘文館 校理 金玉均이라고 하고, 또 그의 지체나 人品은 特出하다고 쓰고 있다. 한편 金玉均의 나이를 29歲라고 쓰고 있음은 우리들의 注目을 끌기에 足하다. 그 까닭은 李東仁과 花房이 만난 것이 1879年이라는 것을 또 다시 뒷바침해 주기 때문이다. 金玉均이 1851年生이니가 1879년에는 29세가 된다.

(e)에 있어서는 吳慶錫의 身分, 그리고 譯官中에서 有識者라는 것.

(f)에 있어서는 金玉均과 吳慶錫이 劉鴻基(號 大致)의 가르침을 받아 宇內形勢에 關心을 쏟게 되었다고 있다. 지금까지 漠然하게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이 이 內容으로 分明해지게 되었다.

(g)에 있어서는 吏曹判書를 趙盛夏라고 쓰고 있으나 그의 正確한 이름은 趙成夏이다. 訓練大將 趙寧夏와 더불어 趙大妃의 조카이다. 宇內情勢를 조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開化黨이 아니고 穩健開化派에 屬하고 있었던 탓으로 소극적인 行動을 取하고 있었을 것이다.

(h)의 李裕元은 領議政까지 지낸 政治家였다. 그러나 世界情勢나 한국이 나아가야 할 方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保守派였다.

(i)의 錦陵尉는 말할 것도 없이 哲宗의 駙馬 朴泳孝를 가리킨다. 나이 20歲라고 되어 있으나 그는 1861年生이니가 1879년에는 19歲가 된다. 따라서 20歲는 틀린 것이다. 朴泳孝도 開化黨이 創設될 때부터 中心役割을 하였다.

(j)의 姜夔는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다. 姜璋(號는 秋琴, 또는 古權堂)를 잘못 쓴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당시의 吏曹判書 趙成夏를 趙盛夏로 썼는데 姜璋을 錯誤로 姜夔라고 쓴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姜璋라는 사람은 武弁 出身으로 身分은 낮았으나 詩人으로, 先驅者로 當代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尊敬을 받았던 人物이었다. 1880年 金弘集이 修信使로 渡日할 때에도 同行하였고, 82年 4月 金玉均이 日本을 처

음 訪問할 때에도 同行하였다.²⁰⁾ 그러므로 李東仁 등이 우러러 받들고 있던 사람은 姜璋이라고 생각된다.

(k)에서는 한국의 勢道政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당시 勢道를 할 수 있는 人物들이 모두 保守의이어서 모든 일이 姑息的으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l)는 李東仁이 서울에 있는 金玉均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內容은 淸國의 李鴻章이 한국에게 西洋의 몇 나라를 紹介하겠다는 意思를 表明한 書翰을 보내왔고 한국政府는 이를 拒絶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前年 즉 1878年 9月 李鴻章이 한국의 李裕元에게 日本의 朝鮮進出을 막기위해 列國과 外交關係를 맺을 것을 示唆한 書翰을 보낸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²¹⁾

(m)는 經濟的으로 利權을 西洋人들에겐 빼앗기지 말고 韓日兩國이 일로 協力해서 商業을 促進시키자는 것이다.

(n)는 韓·日 두 나라가 힘을 합하여 한국의 鑛山開發과 田野開墾을 着手해야 된다는 內容이다. 그리고 桂洞宮이란 그 宮에 居住하는 李載元을 가리킨다. 그는 大院君 李昰應의 조카이다. 開化黨人士들과 어느정도 情을 통하고 있었고 또 新思想에도 關心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甲申政變 때 開化黨人士 중에서 第一 높은 官職인 左議政에 추대되었던 것으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李東仁은 그를 높이 評價하지 않고 있다.

(o)는 六矣應으로 하여금 日本과 交易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六矣應을 내세운다는 것은 당시 開化黨人士들이 私商의 役割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은 資本이 없으니 日本에서 돈을 빌려 船舶이나 器械를 購

20) 拙稿「姜璋의 人物과 思想」, 東方學志 17輯(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76 12); 『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참조.

21) 權錫奉, 「李鴻章의 對朝鮮列國立約勸導策에 대하여」, 歷史學報 21輯(歷史學會, 1963. 8) pp. 105~106 참조.

入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周知하듯이 甲申政變前 金玉均은 3回 日本을 訪問하였는데, 뒤의 2回は 借款 때문에 갔었다. 이 文書에 실린 內容을 보면 借款 문제는 開化黨 創設 당시부터 擧論되었던 것 같다.

(p)에는 한국이 앞으로 改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改革의 目的을 定立해야 될 것이고, 한편 改革의 模範을 日本에서 求해야 된다고 있다. 여기서 日本을 모범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明治維新을 모범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穩健開化派들이 淸國의 洋務派들 처럼 西洋의 技術만을 받아들이고 傳統의 體制를 固守하려는 데에 對해, 開化黨에서는 日本의 明治維新처럼 體制까지도 果敢히 바꾸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主張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改革의 模範을 日本에서 求하기 위해 10數名의 開化黨의 同志를 日本에 보내 陸海軍, 外務, 會計, 勸業 등의 일을 배우게 하려는데 日本政府에서 그들을 받아들이 것인지에 대해 李東仁이 물었다고 있다. 물론 開化黨의 同志派遣 計劃은 뜻대로 안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年 뒤인 1881年 政府의 官吏들로 構成된 이른바 「紳士遊覽團」이 派遣케 됨으로서 李東仁의 꿈이 어느정도 實現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要컨대 日本의 新式 制度를 조사 시키기 위해 사람을 派遣해야 된다는 計劃은 開化黨에서 일찍부터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II)의 「興亞會 參」의 內容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 글은 李東仁이 興亞會에 參席하여 느낀 바를 적은 것이다.

(a)는 聖人이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그 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制度를 만들어 實施한다는 것이다. 萬若에 制度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게 되면 막히고 弊端이 생긴다는 것이다.

(b)는 오늘날 亞細亞洲가 衰退하고 유럽 사람으로부터 困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옛 狀態에 安住하고 다른 나라의 좋은 制度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變通을 해야 될 때 變通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이와 反對로 變通해야 될 때 變通하기 때문에 날로

더욱 強해 進다는 것이다. 이것은 (a)의 內容을 좀더 부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c)는 英國이 淸國에 대해 터무니 없이 阿片戰爭을 일으켜 無辜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印度를 侵略한 事實을 설명한 다음에 우리들은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內容이다.

(d)는 유럽사람들이 富強하고 自慢하는 까닭은 發達한 商工業과 精銳한 艦砲 때문이니 우리들도 그 技術을 習得하게 되면 유럽사람들이 우리를 侮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e)는 美國의 「워싱턴」將軍이 일어나 英國의 干涉을 排擊하고 獨立을 爭取했듯이 亞細亞洲 7億의 人口도 奮起해야 된다는 것이다.

(f)는 東京에 오자 마침 興亞會가 創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感激하였다는 것, 그리고 서로 協力하여 亞細亞洲를 일으켜 보자는 內容이다.

Ⅲ.

以上으로 「東仁聞書」와 「興亞會 參」의 內容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얻은 것을 整理하여 結論에 代身할까 한다.

먼저 李東仁이란 人物이 지금까지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單純한 金玉均의 心부름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東仁聞書」중에, “衣袴頭髮 모두 顯堂之官吏 또는 書生과 같고 坐作言語 또한 我人과 달랐다”고 있고, 특히 日本에 가기전에 벌써 새 思想,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야 될 方向에 대해 花房에게 當당하게 主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훌륭한 思想家, 혹은 經路家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가 主張한 內容은 어찌면 그의 先輩 劉鴻基나 金玉均, 혹은 開化黨人士들의 생각을 代辦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漢文으로 쓴 「興亞會 參」의 글만 보아도 그는 非常한 人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李東仁과 같은 僧侶가 어떻게 해서 새 思想을 갖게 되고 開化運動

에 投身하게 되었을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를 밝힐만한 史料를 우리들은 갖지 못하고 있고 또 筆者 自身도 이에 대해 答辨한 知識이 없다. 단지 앞으로 朝鮮後期의 佛敎思想이나 僧侶에 대한 보다 깊은 研究가 必要하다는 것만을 指摘하고 싶다.

다음으로 開化黨이 만들어진 時期가 뚜렷히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일찌기 筆者는 「開化黨의 形成」이란 論文을 쓰면서 李東仁이 渡日하기 前, 正確히 말한다면 1879年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假說을 내세운 바 있다.²²⁾ 그런데 「東仁聞書」중에 金玉均을 설명하면서 「予의 同志」라고 表現하고 있는 것은 黨을 前提로 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開化黨은 오늘의 政黨과 같은 것은 아니다. 東學黨, 혹은 活貧黨에서 使用하고 있는 黨과 같이 하나의 集團(group)이다. 그러니까 나라의 開化를 目標로 삼고 뭉친 사람들의 團體인 것이다. 金玉均, 朴泳孝, 吳慶錫이 中心役割을 하고 劉鴻基, 姜璋가 幕後에서 指導한 團體였다. 즉 1879年 以前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排除될 수 없으나 「東仁聞書」를 통해 적어도 1879年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兩班, 中人, 常人 혹은 僧侶라는 身分의 制限을 超越하여 近代의 意識을 가진 個人들이 뭉쳐 조직한 團體였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筆者는 前記 「開化黨의 形成」이란 論文에서 역시 그런 假說을 내세운 바 있으나, 「東仁聞書」로 分明해지게 되었다. 앞에서도 引用한 바 있듯이 僧侶出身 李東仁이 兩班의 高官 金玉均을 「予의 同志」라고 堂堂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開化黨은 形成初期부터 日本의 明治維新을 模範으로하여 制度, 혹은 體制改革을 目標로 삼고 있었고 또 改革의 必要한 資金을 日本에서 調達코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開化黨의 이러한 思想, 혹은 政策은 당시의 執權層인 穩健開化派와 對立되게 마련이었고 그리하여 드디어는 政變까지 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2) 『開化黨研究』所收.